기발한 아이디어로 앞서가는 사람들

◎… 국제회의를 대신 치러주기도 하고…◎
◎…운동경기의 응원을 대행해 주기도한…◎
◎…다。또 각종 모임에 나가 참석자들…◎
◎…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한복드레스…◎
◎…로 재미를 보는 사람, 편집회사를차…◎
◎…린 사람, 자동차 디자인에 열정을바…◎
◎…치는 사람도 있다。고학력자들의 실…◎
◎…업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갖…◎
◎…가지 이색직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화 2、000년지에서 발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불황이라 한다。이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 가고 있다。건설, 조선, 전자, 섬유등 각 분야에서 신규채용의 규모가 축소되고 기존사원의 감원마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淨化特輯

금년도 대졸 취업률 55·6%

경제기획원은 올해 연평균 실업률이 4%수준으로 지난해 3·8%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경제기획원은 전년 하반기 성장이 7%를 상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성장률은 5~6%수준으로 지난해보다 둔화되어, 실업률은 84년의 연중 평균 3·8%, 56만7천명보다 3만여 명이 늘어난 60만명 선으로 4%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펴낸〈노동경제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졸이상의 고학력 실업자가 지난 5년간 3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80년의 대졸 실업자는 6만명이었는데 84년 말에는 8만2천 명으로 37%가 증가했다。대졸실업자의 이같은 증가현상은 전체 실업자군에서 실업자의 비율이 높아짐을 뜻한다。실제로 경제기획원의〈경제활동인구연감〉에 의하면 실업자중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82년 10·8%, 83년 12·6%, 84년 14·5%로 해마다 높아가는 추세이다。

정부 통계를 믿는다치더라도 대졸자의 취업률은 83년 66·9%, 84년 63·5%이던 것이 85년 들어 55·6%로 떨어졌다。이 모든 통계를 종합해 볼 때 경기침체와 더불어 실업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설사 통계를 모른다 할지라도 통계수치 이상으로 실업과 불경기의 여파를 일반인들이 체감하고 있음은 사실이다。특히 고학력자의 실업률 증가는 저학력 근로자의 실업 못지않게 사회 안정적인 측면에서 우려되는 요소가 아닐수 없다。

그런데 고학력자들의 실업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창의적인 방면에서 일하고 있는경우도 적지 않다。이들의 이색적인 직업 소개가 전체 실업자의 직업난 해소에 얼마만큼 도움이될지 의문이나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본다。

속출하는 이색직업

대체로 고학력자들의 이색직업은 「뿌자그대로 「이색적」이다。이색적이라함은 아직은 우리사회에서 낯설은 직업이거나 이른바 뉴비즈니스에 속하는 것이다。이색적이니만큼 이를 선택한 사람들은 앞서 말한대로 참의적인 안목에서 그같은 직업을 창출해냈다고볼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자동차전문 관리회사인 마스타기업을 창설한 박기호씨(31세)、그는 작년 4월에 이 회사를 차렸다。

『대학졸업 후, 자동차 분야로 사회에 첫발을내디뎠읍니다。평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죠。막상 자동차분야에서 일을 해보니 신용과 서비스면에서 미비한 점이 너무도 많았읍니다。「기틀장이 시장」으로 통하는 자동차 시장은 구조적인 모순과 여러 분야에 걸친 불신감으로 서로 믿지못하는 풍토가 만연되어있었지요。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읍니다。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톤틀(total) 서비스분야 개발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읍니다』

자본금 4천만원에 종업원 15명을 두고 시작한 자동차 서비스센터는 오너드라이버의 증가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마스타기업의 주일무는 대리운전、고장의 신속한 수리에 있다。또 마스타기업의 회원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유명 관광호텔、병원、헬스클럽 레저시설、유흥업소에서 20~40%의 할인혜택을 받기도 한다。

대구 계성고와 숭전대 영문과를 졸업한 김동환씨는 국제회의를 대신치러주는 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회사를 만들어 재미를 보고 있다。그는 한국IBM에서 10년간 일하다 퇴직한후 컴퓨터 주변기기 생산메이커를 만들었다가 2년 만에 손을떼고 PCO업체인 브리지인터내셔널을 설립한 것이다。

『지금은 별로 돈을 못 벌지만 한 5년후에는 수익성 사업으로 각광을받으리라 봅니다。국제회의 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회의기획에서부터 소요경비산출、회의장 설치、프로그램 준비、홍보업부 대행、속기사 및 통역요원 확보에 이르기까지 회의 진행에 필요한 일을 전부 또는 부분대행한다。이 회사가 대신 해준 대표적인 국제회의로는 전북한의학학술대회、창립61주년 치과학술대회、제37차 JCI 세계대회、세계신용협동조합연합회、세계기독교장교대회 등 부지기수다

응원전문 대행업체도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그리고 각종 사내경기가 늘어나면서 응원만을 전문으로 대행해 주는 응원업체인 코레스응원기획프로덕션을 맡은 김영걸씨。그는 명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후 대학시절 응원단장을 지냈던 경험을 살려 응원용역업에 손댔다。응원도구의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83년 10월에 출발했지만 지금은 치어리더、밴드등을 동원하여 이색적인 응원으로 관중을 경기내용에 못지않게 즐겁게 만들어 준다。김씨가 그간 치른 행사는 83년 11월의 대통령배 배구대회를 시점으로 고려증권응원、축구 수퍼리그、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부터 7차까지 롯데팀 응원 등이다。용역비는 3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다양하다。

응원용역업과 비슷한 성격의 레크리에이션기업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다。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을 「잘 놀게 만드는것」이 주업무이다。김장회씨(29세·한국레크리에이션 아카데미 지도부장)가 바로 그 주인공 김씨는 사철내내 각종모임에 나가 웃음을 안겨준다。주로 초대를 하는 곳은 각종 사회·종교단체의 모임、친목단체의 친목회、기업체의 연수회、각급 학교의 계절 캠프、유유회 등이다。그는 각 모임에 따른 대상층을 파악한 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석자들을 폭소의 도가니로몰아넣는다。남도 즐겁게하고 돈도 버니 직업치고는 그만인 셈이다。김씨는 일급지도자에 속하는데 사례금은 한시간짜리 실내 프로그램이 10만원 야유회가 15~20만원 정도、요즘에는 어떤 단체든 모임이 있으면 레크리에이션을 갖는게 상례여서 1년내내 바쁘게 뛰어다닌다。

전통 혼례복의 고전적인 멋을 살리면서 현대감각에 맞도록 개발한 한복드레스로 재미를 보는 사람도 있다。이 한복드레스를 처음으로 시도한 이는 이영희씨。이씨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현재 성심여대 대학원 염직과에 재학중인 만학도이기도 하다。이씨는 무겁고 진한 우리의 옛 혼례복을 가볍고 심플하게 디자인한 혼례복으로 만들어 선풍을 일으켰다。

편집전문회사 설립

『한복드레스는 재미 교포사회에서 먼저 인기를 얻었읍니다。특히 LA 올림픽때 문동부 주선으로 코리아 플라자에서 이틀간 의상쇼를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그래서 교포들과 현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앵콜쇼도 가졌어요』

이씨는 아직은 대량생산이 어렵지만 연구하고 노력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이씨의 꿈은 한복식 웨딩드레스로 전세계의 신부들을 치장 우리의 아름다움을 팔고 싶다는 것이다。

『한국 출판업계의 만성적인 불황은 편집이 잘 못되는 데서부터 기인됩니다。과학적·합리적인 편집작업이 비용도 싸게 먹히고 시장에서 성공하는 열쇠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읍니다』

국내 첫 편집전문회사를 차린 김형윤씨의 말이다。김씨는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중 편집뿐만 아니라 편집자문·기획·집필·집필의뢰·교작업·사진작업·미술작업·제작·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업무를 도맡아 처리해주는 김형윤 편집회사를 지난 5월22일에 설립했다。글내용과 시간적인 요소、내용과 표현의 합께 사용하도록 편집일을 대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김형윤편집회사와 비슷한 업무를취급하는 대행업체를 만든 이는 이 밖에도 「언론의 문로(文路)의 빛창을열어드립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통로의강승구씨, 그리고 토우기획의 손창호씨가 있다。

첨단 레이저 기술 용역법

우리나라에 자동차산업이 상륙한지 30여년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인의 손을 거쳐 탄생된고유의 자동차 모델은 하나도 없다。자동차 전문디자이너 부재를 일층한 다고나 할까。윤우용씨는 그런 점에서 아주 돋보이는 존재다。윤씨는 인하대 토목과를 다니다도 미、비터 뷰리대학에서 2년간 그래픽을 전공했고 캘리포니아의 세계적인 산업디자인 전문학교 아트센터에서 4년간 자동차디자인을 공부했다。

〈다음호에 계속〉

連載 栽培教室

新規會員을 爲하여

○生藥名=澤瀉
○藥用部=塊根
○成分 精油、樹脂、蛋白質、澱粉、灰分등이 함유하며 주성분은 미상이다。
○効用=漢方에서 利尿藥으로서 賢臟病、淋疾、오줌을 자주 누거나 또는 오줌량이 적은데 또는 胃속의 水分이 停滯되는 데에 쓰인다。

1、性狀

논에 재배되는 多年生 草本이다。塊根은 短縮되어 圓形을 이루었고、터럭뿌리가 많이났으며、꽃대(花莖)는 높이 70~80cm 내외이고 잎은 뿌리에서 여러개 가는 곳에서 나오는데、잎자루(葉柄)가 길고 卵形의 타원형이며 心臟形 잎밑 또는 둥근잎 밑이고 잎끝(葉端)은 뾰죽하다。7~8월에 輪生總狀花序로서 많은 흰꽃이 피며、여윈 열매(庚果)를 맺고 그속에 잔씨(細小種子)를 많이 결실한다。

2、品種

뿌리의 모양이 圓形인 것을 율택(栗澤)이라 하고、屈曲이 많은 것을 안택(鞍澤)이라 하는데、栗澤은 잎밑이 크고 넓으며 잎밑이 심장꼴인 長卵形인데 비하여、鞍澤은 잎이 좁으며 잎밑이 쐐기꼴인 長卵形인데 비하여、鞍澤은 잎

택 = (澤) 사 = (瀉)

3、栽培法

1、栽培適地

기후상으로는 우리나라 中南部 各地에서 재배할 수 있으며 土質은 물을 마음대로 빼고 댈 수 있는 肥沃한 논에서 가장 잘되나 肥培管理만 잘하면 아무데서나 재배할 수 있다。집 근처의 덧물받이의 肥沃한 논에서는 벼를 심으면 莖葉이 너무 무성하여 쓰러지거나 또는 稻熱病이 생기어 주작물 저앉는 등 피해를입는 수가 많은데 澤瀉는 비옥할수록 잘 되는 作物이므로 이러한 장 땅에 재배하기에 가장 적당하며、찬물받이 논도 8~9월이 되면 6~7월 같이 물이 차지 않으므로 澤瀉栽培는 충분한 시비를 하여 재배하면 비교적잘 되는 것이다。

2、育苗

育苗移植法에 의하여 번식하는데 못자리 苗床은 물 대기가 좋은 비옥하고 볕이 잘 드는 논을 택하여 다음 요령에 의하여 育苗한다。

㉮播種期:中部地方에서는 6월 20일경、南部地方에서는 6월 30일경이며 播種適期인 벼못자리(水稻苗床)後 作으로 이용할 수도있다。

㉯播種量 및 못자리 面積:本圃10a에 소요되는 못자리 면적은 50㎡이며 1ℓ내외의 種子가 필요하다。

㉰播種方法:벼못자리 苗板을 만들고 물을 뺀 후 바람이 없을 때 種子를 약 10cm 정도의 잔모래와 섞어서 묘판 전면에 고르게 흩어뿌림하고、물을 대었을 때에 種子가 뜨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래로 약간 덮어주는 것이 좋다。

㉱못자리의 管理:파종 후 2~3일간은 고랑에만 물을 대는 것이 좋으며 소나기가 올 염려가 있을 때에는 물을 대어 공석、이엉마름 등 덮을 수 있으면 못자리 위에 덮는 것으로 의한 種子流失을 방지함이 좋으며、물을 댈 때에는 물을 서서히 넣어서 種子가 뜨지 않게 하여야 한다。

2주일 내외가 되면 발아가 되며 물은 얕이 대주도록 하고 肥培에 힘쓰면 잘자란다。

㉲못자리 시비에 따르면 못자리는 대하여 잘 썩은 堆肥 100kg、過燐酸石灰 6kg、草木灰 10kg을 어보면 못자리 50㎡에 거름으로 시비하고、확산압모니아 5kg을 2~3회 나누어서 웃거름으로 시비한다。

㉳定植時期:中部地方에서는 7월 하순~8월 상순경、南部地方에서는 8월 상·중순경에 심는 것이 適期인데 이 때가 되면 묘가 잎의 길이 15cm내외로 자라며 크게 자란 苗부터 골라 뽑아 심는다。조금 작은 苗도 3~4일 지나면 큰 묘를 심을 수 있는 자란다。

㉴定植地의 準備:澤瀉한번만(一毛作)심고 자할 때에는 봄부터 定植期인 7~8월경까지 堆肥、人糞尿등 비료를 충분히 갈아 두었다가 뿌리고 2~3차 심으면 흙이 호물호물 뒤집어서 심은 흙을 고자 할 때에는 多肥性植物이고 生育期間이 짧은 작물이므로 벼 생육이 좋으며、이른 벼를 수확한 後作으로 심어 생육이 썩어서 좋으며、심은 지